

발행호: 43호

발행일: 2019.09

발행인: 임상래

발행위원: 이태혁

발행기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NUESTRA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1. ISSUE TALK

[005] 라틴아메리카 2019년 하반기 선거전망

오삼교 (위덕대)

2. LATIN AMERICA FOCUS -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015] 2.1. 한-브라질 외교관계 (60주년을 돌아보며)

이정관 (전 브라질 대사)

[025] 2.2. 한인 이민사와 현재 한인 이주자들의 이야기 (브라질)

김한나 (상파울루 ESPM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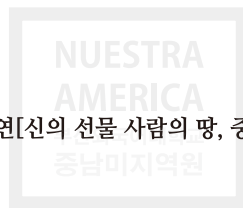
[033] 2.3. 회갑을 맞은 한국 브라질 양국 관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며

정재민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3. LATIN AMERICA BOOK JOURNEY

[041] 다 말하고 싶은 '욕심쟁이' 책 - 추중연[신의 선물 사람의 땅, 중남미] 서평

김태중 (국회도서관)



4. ILLAS News

[057] 간추린소식

라틴아메리카 2019년 하반기 선거전망

오삼교 (위덕대학교 교수)

작년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선거에서 우파 정권이 대거 약진하면서 핑크 타이드는 퇴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주류였다. 브라질에서는 친미 극우성향의 볼소나로(Jair Bolsonaro) 정부가 들어섰고, 콜롬비아에서도 여느 때와 같이 우파의 두께(Ivan Duque)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칠레에서는 2017년 말 2010-14년 대통령을 역임한 보수파의 세바스티안 뻬네라(Sebastián Piñera)가 좌파 정당을 누르고 다시 집권하였고 파라과이에서도 역시 우파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미 우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아르헨티나와 페루, 기타 중미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지도는 우파 일색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2018년 7월 중도좌파 성향의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MORENA)가 당선되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에서 좌파 정부가 재집권을 시도하고 있고 재집권 가능성도 높아 핑크타이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올 가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의 대선을 전망해본다.

아르헨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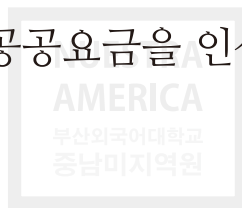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8월 11일 실시된 대통령 예비선거(PASO)에서 전대통령 키르치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가 스스로 부통령 후보가 되고 좀더 온건한 이미지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Frente de Todos가 지난 2015년 선거에서 승리한 우파의 마우리시초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 보다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페르난데스는 예비선거에서 47.65%의 득표로 32.08%를 얻은 현 대통령인 마크리를 15%나 앞서나갔다. 마크리 현

대통령은 격전지로 예상되었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도 21%나 되는 큰 차이로 패배하여 10월 27일의 본 선거에서 좌파 대통령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선거제도에 의하면 1위 득표자가 45% 이상 득표하거나 혹은 40% 이상 득표하고 2위와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질 경우 1차 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페르난데스 후보의 득표율이 47%이고 2위인 마크리 대통령과의 격차가 15%여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차 투표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마크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배경에는 부패와 경제 문제가 있었다. 브라질 호세피 정부의 탄핵을 불러온 것도 정치적 부패와 경제위기였다는 점에서 좌우를 불문하고 부패와 경제위기는 정권 교체의 핵심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마크리 자신과 측근의 부패 스캔들이 터져 돈세탁, 알선수뢰, 불법 축재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7년 말에는 은퇴 연령을 늦추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연금개혁을 통과시켜 대규모 시위를 유발하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으며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마크리 정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2018년 인플레이션이 47%까지 치솟고 폐소화의 가치도 급락하여 외환위기가 초래된 것은 현 정부에 큰 악재였다. 경제안정화를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작년 9월 향후 3년간 570억 달러에 이르는 IMF 역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을 얻어냈으나 구제금융의 대가로 약속한 2019년도의 재정 적자를 면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국민의 불만을 촉발하였다.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6월 30일 예비선거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다. 10월 27일 예정된 선거에는집권 여당인 Frente Amplio의 다니엘 마르티네즈 (Daniel Martínez), 제 1야당인 PN(Partido Nacional = Partido Blanco)의 라카예 뽀우 (Luis Alberto Lacalle Pou), 제 2야당인 PC(Partido Colorado)의 에르네스토

탈비(Ernesto Talvi)가 경쟁에 나선다., 마르티네즈는 몬테비데오 시장을 역임한 엔지니어로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으며 예비선거에서 42%의 지지로 당 후보가 되었다. 그는 타바레 바스케즈 현 대통령과 가까우며 바스케스의 첫 임기동안 산업에너지광산부장관을 역임한 바도 있는 인물이다. 2015-19년간 몬테비데오 시장으로서 3년 연속 시 정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카에 뽀우는 루이스 알베르토 라카에(Luis Alberto Lacalle de Herrera; 1990-95) 대통령의 아들로 예비선거에서 53%의 지지를 기록하였으며 우루과이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긴축을 주장하고 있다. 탈비는 시카고 대학 출신의 경제학자로 정부 정책에 참여해왔으며 CERES(Centro de Estudios de la Realidad Económica y Social)라는 연구소를 이끌어 왔다. 지난 7월 29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마르티네스는 30%, 라카에 뽀우는 26%, 탈비는 15%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이후의 여론조사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 FA 30% 초중반대를 기록하여 25-30%를 기록한 PN보다

5-6% 정도 앞섰으며 PC는 10%대 초반으로 그간의 당 지지도와 큰 차이가 없다. 특기할 것은 FA가 여전히 앞서있으나 당 지지율은 5년 전보다 크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FA는 2014년 7월 42%의 지지를 기록했으나 올해 7월에는 30%로 감소했다. 같은 시기 PN의 지지율은 27%와 26%, PC의 지지율은 13%와 15%로 별 차이가 없다. 현재의 지지율 차이를 보면 10월 27일의 1차 투표에서는 어느 당도 과반수 획득이 어려워 11월 24일 결선투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FA의 부진은 2015년 이래의 경제성장 정체와 실업률 증대, 치안 불안, 고위직 부패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따바레 바스케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첫 임기였던 2010년 말의 62%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FA가 유권자의 35%를 당원으로 확보하고 있고 FA가 그동안 추진한 조세, 의료, 노동개혁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가 많아 FA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원주민 운동과 노동운동의 지원을 받은 MAS(Movimiento Al Socialismo)의 에보 모랄레스가 2006년 이래 장기 집권하고 있어 이번에도 연임에 성공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2016년 2월 21일 국민투표에서 3선을 허용할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268만명 (총 투표자의 51.3%)의 유권자가 반대를 표명하였다. 모랄레스는 처음 이를 수용했으나 집권층은 연임을 위해 모랄레스지지 세력이 포진한 사법부를 통해 연임의 길을 열었다. 2017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연임 제한은 정치인의 공직 취임권리를 막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논리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연임을 허용하면서 4선에 도전하는 길이 열렸다. 이는 2011년과 2017년 시행된 사법부 선거를 통해 원주민의 사법부 진출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했다.

볼리비아는 2019년 1월의 예비선거에서 10월 20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9개 정당 후보를 결정하였다. 지난 8월 12일 지지율 조사(Víaciencia)에서

MAS(Movimiento Al Socialismo)의 에보 모랄레스는 39.1%, CC(Comunidad Ciudadana)의 전 대통령 까를로스 메사 (Carlos Mesa)는 22%, 21F(Bolivia Dice No)의 오스카 오르티즈 (Oscar Ortiz)가 9.5%, MTS (Movimiento Tercer Sistema)의 펠리스 파찌 (Felix Patzi)가 2.5%, UCS (Unidad Civica Solidaridad)의 까르데나스 (Victor Hugu Cardenas)가 1.2%를 기록하였다. 7월 21일의 Ciesmori 조사에 의하면 모랄레스 지지도는 37%, 메사가 26%, 오르티즈가 9%였다. 전반적 추세는 모랄레스의 무리한 연임 추진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의 4선 연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볼리비아 헌법에 의하면 대선 1차선거에서 유효투표의 50%+1을 얻은 후보는 바로 당선, 그리고 유효 투표의 40%를 얻고 2위 후보와 10% 이상의 차이가 나도 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전술한 8월 12일의 조사에 의하면 모랄레스의 득표가 40%에 근접하고 있고 2위인 메사 후보와의 격차가 17% 정도여서 1차 투표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조사에 의하면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메사가 승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모랄레스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 개정으로 권위주의로 후퇴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 정부의 경제 성적은 좋은 편이다. 볼리비아는 그의 집권 이후 정치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평균 4.6%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빈곤률은 2006년 60%에서 2018년 37%로 하락하였으며 경제의 성장과 공공투자의 확대로 고속도로가 늘어나고 소비가 확대되어 쇼핑센터가 들어서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인 만족도도 큰 편이다. 이 같은 모랄레스의 경제적 성과는 국제상품가격의 인상과 지속적 자원 수요 확대에 힘입은 것이지만 역으로 국제수요의 변화에 취약할 수도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셰일 가스 생산 증대로 볼리비아 가스에 수요가 줄어들 경우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모랄레스 재집권의 경우 새로운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모랄레스는 자신의 집권 이후 농민과 빈곤층에 대한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포퓰리즘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임 제한을 무력화시킨 그의 조치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포퓰리즘과 후견주의에 근거한 모랄레스의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주목된다.



한-브라질 외교관계 (60주년을 돌아보며)

이정관 (전 브라질 대사)

한브라질 관계가 올해로 환갑을 맞았다. 돌이켜 보면 한국은 1959년 10월 중남미 국가들중 첫 번째로 브라질과 국교를 수립한 이래, 특별한 문제 없이 여러 분야에서 꾸준하게 협력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모범적인 양국관계를 운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항상 한국정부에게 발등의 불이었던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브라질 정부는 변함없이 한국 입장을 지지하면서 성명 발표 등을 통해 필요한 목소리를 내 주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세계적 이슈를 다루는 국제 무대에서 다자외교에 능통한 브라질과의 협력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수년전 브라질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교역규모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고, 주요 한국 대기업들 대부분이 브라질 현지에 진출하여 매우 양호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두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고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브라질이 90년대 중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경제의 기틀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제약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더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엄격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적어도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관계의 현주소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선 대표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교역의 측면에서 볼 때 100억불에 못 미치는 현재의 교역 규모는 세계 8위 및 11위라는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적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의 대부분이 브라질에 진출한 몇몇 한국

대기업들에 대한 부품 공급에 그치고 있으며 투자도 일부 대기업에 의해 상파울로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이루어지는 등 ‘편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활발한 경제교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긍정적 인식은 피상적인 호감의 수준으로서 실질적 협력의 결실로 이어질 만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브라질이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늘 거론되긴 했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협력사업이 성사된 케이스는 많지 않다.

이와 같이 양국간 경제협력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데에는 브라질이 상당 기간 폐쇄적이고 내향적인 대외경협 정책 노선을 취했으며 양국 교역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을 때 중국이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들을 추격하는 데 올인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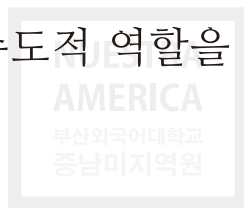
단기적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한국의 경제운용 방식으로 비롯된 문제점들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성의 토대 위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을 시야에 두고 앞으로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수교 60년 이후 향후 대브라질 외교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에게 있어서 브라질이란 나라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4강과의 관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한국으로서는 브라질을 위험분산과 다변화를 위한 주요 협력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보 영역에서도 브라질이 국제무대에서 강대국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상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일본의 수출규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직면해 있는 한국에게 경험 다변화의 대상으로서의 브라질의 가치는 매우 크다는 점이다.

마침 브라질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을 협력 다변화의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착안하여, 양국이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비단 미중무역분쟁에 대처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리스크의 분산을 위한 다변화와 다각화의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는 기본인식 하에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단기적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 목표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접근과 하이리스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으로 자유무역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의 촉진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한국과 브라질이 이 와 관련해 서로 협력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브라질도 내부적으로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실탄이 바닥난 상황에서 과거의 폐쇄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의 풍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두가 윈윈하는 자유무역의 길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WTO를 중심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두 나라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미있는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무역의 확대와 함께 데이터의 확보와 사용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 등으로 앞으로 세계무역 질서와 관련한 논의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유무역 촉진 선도국으로서 한브라질

양국이 어떠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던 경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함에 따라 미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해 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대처하는 문제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브 양국이 매우 효과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생산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토지,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보다 지적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노동력도 창의성과 감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자원 고갈, 환경 파괴 등과 함께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기회를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놀라운 경제성장의 결실은 결국

효율적인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생산방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고질적인 산업 경쟁력 문제를 겪어왔던 브라질로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활용하여 후발주자의 역전이라는 도약의 기회를 만들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러한 기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 IT와 바이오 분야인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농업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생물다양성 보유국인 브라질은 그러한 기술력이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상호보완성이 톡톡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브라질이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숙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IT, 바이오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과 보다 실효적이고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경제규모의 양적 확대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함으로써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어려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한브라질 양국이 이러한 공통의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단순한 무역과 투자의 증대를 뛰어넘는 폭넓고 깊이 있는 이상적인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단기간내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패턴에 머물지 말고 브라질이 궁극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가 되는 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은 대 브라질 수출과 투자에 있어서 브라질 측이 제공하는 각종 세금감면을 비롯한 여러 특혜를 쫓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어프로치를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브라질 측으로부터 한국이 도움을 주는 파트너라기보다 결국에는 경계해야 할 경쟁 대상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이제 OECD 가입을 앞두고 정부보조금 철폐 등을 통해

선진적인 경제시스템 구축을 추구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더 이상 이러한 패턴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성은 자칫 강점에만 집중하다가 약한 부분을 돌보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으로서는 브라질 제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는 브라질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재 분야에 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프라, 치안, 의료, 교육과 같은 브라질에게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브라질과의 협력관계의 양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인 이민사와 현재 한인 이주자들의 이야기 (브라질)

김한나 (상파울루 ESPM*대 교수)

한국-브라질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민을 와서 이제는 60주년을 기념하게 되었다. 인생의 3/4이상을 브라질에서 보낸 이민자로서, 현재는 교수라는 직업으로 인해 브라질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가 한인타운인 봉헤찌로이기에, 매일 다른 동포분들과 마주치며, 커뮤니티의 소식도 접하고, 여러 문화 행사에 참석하기도 한다. 한국과 브라질이 수교한지 60주년이 된 올해,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 기쁘고 뿌듯한 마음과 함께, 이민자 1세대 및 1.5세대의 고령화, 재이민/역이민 및 2,3,4세대들에게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바이다.

* ESPM: Escola Superior de Propaganda e Marketing 경영학과

한국-브라질 양국의 정치, 경제 및 문화 교류의 강화를 위한 여러 공관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양국 외교부의 정보에 따르면 2018년 교역 현황은 88억불 (수출 49억불/수입 39억불)로서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의 제 2위의 파트너라고 인정받고 있다. 브라질에 한국의 투자는 81.27억불로서 이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POSCO 등이 진출하며 진행된 투자로서, 다수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까지 현지에서 고용 창출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이다. 또한, 브라질은 한국과의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교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분야의 관계 상승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한류로 인한 케이팝 팬들의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대한 활동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결과가 좋은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동포들이 이를 인지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한-브 수교가 1959년에 맺어진 후, 1962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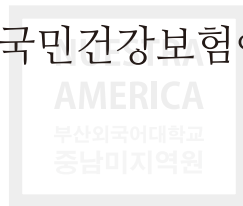
부산항을 출발한 제1차 브라질 이민단은 1963년2월 산토스항에 도착하였고, 중남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인사회를 형성한 브라질 동포들의 초기 이민사가 순탄치 않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도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한국에서 이민의 뜻을 가진 가족, 친척 및 지인들을 초청해 왔고, 1세와 1.5세들의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가정들이 생겨나면서 브라질 한인사회는 점점 성장해 갔었다. 이 외에도 1990년대부터는 한국 대기업들의 브라질 진출로 인해 파견된 주재원과 가족들, 장기 출장자, 여행객 등, 다양한 한국인들을 브라질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본인의 기억으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브라질 한인사회는 매우 능동적이었고 활기가 넘쳐 났다. 여러 동포단체들이 형성 되었고,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 1세, 1.5세들의 단합과 친목 및 2세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을 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다.

이러한 활기 넘치는 한인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반부터 브라질 경제에 여러 위기가 오면서, 국가의 GDP, 인당 GDP 및 구매력이 모두

하락하였고, 이로 인한 소비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인이 대부분인 동포들에게도 타격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브라질에서 사는 모든 이들이 같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여, 수많은 브라질인들도 소득 감소와 실업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악화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사람들도 여건이 주어지는 이들은 북미나 유럽으로 이민을 가는 추세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되면서, 사립 의료보험의 높은 비용과 생활고로 근심하시던 연로하신 분들, 또한 사립교육이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자녀의 학비로 인해 힘들어 하던 동포들이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1세와 1,5세는 중소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 고령화에 필수적인 브라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해 온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개혁을 시도중인 연금을 받으려면, 이전 기준으로 수급요건은 남자는 35년, 여자는 30년동안 INSS보험료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노령 연금을 기준으로 해도, 최소한 15년은

INSS보험료 납부를 해야지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이러한 장기간 납부를 하는 경우는 원천 징수가 적용되는 직장인들이나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고령화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브라질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SUS(통합보건시스템) 사용 또는 사립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립 의료보험의 비용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언어 소통의 불편함과 치료 과정 속도의 느림에 불만을 가지셨던 많은 이민 1세 어르신들은 한국의 급히 발전한 국민건강보험에 이끌려서 역이민을 계속 진행중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역이민 또는 재이민이 지속되는데, 브라질 사립 교육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공립학교의 수준이 우수한 한국과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의 이동에 따라,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자녀가 없는 브라질에서 계속 살아가실 이유나 여건이 없어서 함께 이동하시는 추세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경제 학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브라질 한인 사회는 이제 이민 56주년을 맞으며 자체적으로 미래를 형성해 가는 중이다. 브라질을 이미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의류 및 다양한 중소기업인,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직장인 등으로 활동중이다. 이러한 1, 1.5, 2, 3세대들이 개개인의 생활에서, 자기자신이 한민족임을 자랑스러워 하며, 대한민국의 “민간대사”의 역할을 받아들여서 열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브라질에 위치한 여러 공관 및 기업들과 동포 기관들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의류산업이라 한 분야를 통해 한국인의 근로성을 알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던지 우수한 태도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국인을 브라질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시켜주는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브라질 사람에게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한국이 내 뿌리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 안에 ‘한국인’이라서

존재하고,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차세대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한국이 기나긴 그리고 힘든 역사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점, 브라질 초기 이민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구어 낸 개개인의 이야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준비해가는 현재의 한국에 대한 정보 등을 계속 들려주어야 하며, 한국의 문화와 언어로 차세대들을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부분을 알려주고 관심을 갖게 해 주면, 개개인이 한국의 “민간대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한-브 수교 60주년에 마주한 새로운 도전들로 인해, 브라질 한인사회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희망하면서, 언제나 한국을 브라질인에게 정확히 그리고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러한 자녀를 키워내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글을 맺는다.

회갑을 맞은 한국 브라질 양국 관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며

정재민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장)

한국이 브라질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게 1959년이었으니 올해로 60주년이 된다. 60이라는 숫자 즉, 예수는 사람으로 치면 회갑이고 이는 동양철학에서 육십갑자로 표현되는 생명의 한 주기가 완성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니 올해 예수 살이 된 한국과 브라질 양국 관계 또한 지난 한 주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주기를 지혜롭게 준비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돌이켜보면 한국이 중남미 국가 중 첫 수교국으로 브라질을 선택한 데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놓치지 않은 혜안이었다. 양국 수교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도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놓치지 않은 해안이었다. 양국 수교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도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잠재력은 여전히 지대하다. 영토와 인구 수만 봐도 브라질은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 면적 850만 Km², 인구 2억 500만 명으로 모두 세계 5위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 1조 8600억달러로 세계 9위이지만 1인당 GDP는 1만 10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60년 전 한국은 전쟁의 참화에서 겨우 벗어나 경제적으로 걸음마를 내딛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눈부신 속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 기간 동안 최빈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적은 10만 Km²로 세계 111위, 인구는 5100만명으로 세계 28위에 불과하지만 GDP는 작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 1조 6200억달러로 세계 12위이고 1인당 GDP는 3만달러를 넘어섰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수 년간 경기침체와 대외환경 악화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남미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브라질의 중요성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하려면 경쟁력 있는 부문을 상호 보완하여 서로 윈윈하는 교류를 지향해야 한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비옥한 국토를 바탕으로 원자재와 농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력을 앞세워 제조업과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브라질은 철광석, 육류, 커피 등 1차 상품을 주력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제품을 브라질에 수출하거나 직접 투자로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좋은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브라질이 경쟁력 있는 중소형 항공기 부분과 한국이 경쟁력을 보이는 방위산업 부분을 기술 교류를 통해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4차 혁명 시대에 접어 들고 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혁명은

한국이든 브라질이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변수도 예상보다 오래 계속되고 있다. 창의적인 사고와 기술이 없다면 도전과 변수라는 거친 파고 속에서 생존하긴 어렵다. 새로운 주기를 맞이한 한국과 브라질 양국 관계 역시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환경 속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해 나가려면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발전을 고민했다고 밝혔을 때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가속도가 들불처럼 번지는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식 접근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온라인과 SNS 를 통한 디지털 소통이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은 여전히 진정한 교류의 장으로 남아 있다. 새 시대를 맞이한 양국 관계에 인적자원의 직접적인 교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수 년 전까지 젊은 브라질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학문과 기술 교류는 물론이고 한국 젊은이들과 우정과 문화를 공유해오다가 최근 중단된 '국경 없는 과학자(Cientistas sem Fronteira)' 프로그램은 빠른 시일 내에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단체, 학계, 정부간 인적교류는 양국 관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줄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각계 각층의 인적 문화적 교류는 한국과 브라질을 끊임 없이 이어주고 양국간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소프트파워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4년 이후 브라질과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개념이 양자 외교관계의 실제보다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하더라도 무려 15년 동안이나 진전이 없다는 사실은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양국간 교역량은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들어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관계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는 동력과 기회를 잃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이라는 중요한 한 주기를 마무리짓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브라질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수준을 격상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보여진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관계 격상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격상이 어렵다면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 로드맵을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브라질 양국은 전통적인 교역 이외에도 서로에게 훌륭한 조연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세계의 허파' 아마존 밀림이 개발을 빙자한 무차별적인 방화로 빠른 속도로 파괴되는 상황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한국이 브라질 환경문제를 나몰라라 할 수 없다. 브라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도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브라질은 2001년 북한과 국교를 체결했다. 남북공동수교 국가로서 브라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흔히 인간관계에서 어느 한 쪽이 우월의식이나 자만감으로 경도된 태도는 건강한 교류를 낳을 수 없다. 국가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가운데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자세로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를 개척해나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양국 수교일인 오는 10월 31일 개최될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한국-브라질 수교 60주년: 새로운 세계질서와 한브 관계의 미래"는 정치외교, 경제통상, 교육문화, 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 말하고 싶은 ‘욕심쟁이’ 책 - 추종연 [신의 선물 사람의 땅, 중남미] 서평

김태중 (국회도서관 조사관)

I. 다 말하고 싶은 ‘욕심쟁이’ 책, 모든 정보를 다 담은 ‘한 권’(Un libro)의 책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이 2019년에 발간한 추종연의 “신의 선물 사람의 땅, 중남미”는 중남미의 현지 보고서 같은 책이다. 책은 크게 8파트 나누어져 중남미의 과거역사부터 현재 정치, 경제, 문화까지 아우르며 외교관의 생생한 현지체험을 바탕으로 쉽고 친절하게 중남미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 “신의 선물 사람의 땅, 중남미”는 책머리에 저자, 추종연도 밝혔듯이 학술서적은 아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중남미 현지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겪었던 생생한 체험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고문이나 논문으로 보충하여,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생생한 삶의 기록으로 만들었다는데 이 책의 장점이 있다. 물론 저자의 주요 근무지였던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관한 소개는 비교적 정보가 풍부한 반면 그 밖의 멕시코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약한 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중남미 전역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책자와는 확연히 다른 장점이 지닌 책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저자의 애정이 듬뿍 담긴 책자이긴 때문이다. 확실히 저자가 이스빠니스타(Hispanista)이란 걸 확실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의 백과전서식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중남미 입문서로 몇몇 부분에서는 전문서적으로도 손색이 없다.

중남미 33개국의 언어분포를 언급하면서 저자는 중남미 다양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언어의 다양성만 열거한 나머지 중남미에 이해가 부족한 독자에게는 중남미의 주요언어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임을 망각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다. 중남미 주요대국들은 카리브의 소국들을 제외하고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리브해 국가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대국인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스페인어를 공용어를 쓰고 있어, 우스갯소리로 중남미는 스페인어면 다 통한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한다. 물론 브라질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는 스페인어와는 다르지만 브라질사람들은 웬만한 스페인어는 알아듣는다. 그들의 역사문화가 그리하듯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역시 형제어이기 때문이다. 몇몇 부분에서는 아주 작고 초보적이 에러도 있지만 충분히 감안하고 읽을 수 있다.

책은 제1부에서 8부까지 나뉘어져 각 파트마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총괄적인 중남미 알리미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형제국과 같은 중남미 국가들 간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예로 들며 소개한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국들은 아르헨티나와 니카라과가 아니라 콜롬비아와 니카라과이기 때문에 이 작은 오류는 이참에 정정한다.

II. 큰 땅, 다층적 세상 - 인도아프로아메리카 (IndoAfroAmerica)

제1부에서 중남미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언급하면서 중남미의 지형 역시 아르헨티나 팜파평원과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평지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의 안데스산맥으로 대표되는 험준한 상악지형도 있다고 소개할 만큼 저자는 세심하다. 결국 저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흔히들 “샐러드 볼” (salad bowl)이라고 불릴 만큼 같으면서도 다양하고 다른 중남미의 ‘컬러풀’한 문화를 얘기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학술적 용어로 ‘이종혼합’ (sincretismo)라 부르는 바로 그 점인 것이다.

보통의 한국민들이 특히 언론지상을 통해 자주 접하는 중남미의 폭력사태와 치안부재와 경제혼란의 모습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기 십상이다. 저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1. 중남미국가들의 주기적인 경제적 부침과 그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과 2. 빈번히 발생했던 군부의 쿠데타와 군부정권의 만행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와 동시에 “있는 그대로 볼 것이며 왜곡된 정보를 토대로 중남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해서도 부풀려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중남미에 대한 이런 글을 쓸 때 마다 대두되는 문제는 중남미라는 용어문제이다. 이미 굳어서 관용적인 용어로 쓰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소위 중남미라고 부르는 지역은 북미의 멕시코와 카리브제도와 중미, 남미를 아우르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저자도 밝혔듯이 이제는 북미, 카리브, 중미, 남미를 총괄하는 용어로 라틴아메리카·카리브로 개칭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필자에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제2부와 3부, “중남미의 숨겨진 가치와 진면목”과 “젓과 꿀이 넘치는 가난한 땅” 자원보고 중남미를 소개하면서 현재 중남미대륙에서 최고의 명품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전자제품, 핸드폰, 자동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중남미에서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발전은 중남미제국들의 경제모델로, 따라가고 싶은 국가가 되었다고 말하며, 중남미에서는 한국인은 ‘근면함’의

대명사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한다. 이런 자부심으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백인에 대한 심리적 열등감도 없다고 말하며, 중남미의 한국인들은 ‘근면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중남미사회의 열등아가 아닌 주류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지하다시피 중남미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식량공급지기로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세계의 열강들이 안정된 자원확보를 위해 미국과 최근 들어 특히 중국이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력하나마 자원전쟁에 참여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6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숙련된 인적자원과 자본의 부족으로 농업이민정책을 실행했고, 1962년 최초로 한국인의 브라질 농업이민이 시작된 이래 지금은 과거 실패한 농업이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중남미사회의 주류사회로 편입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한국의 중남미 이미지는 특히 미국이 제공한 부정적 이미지 투성이의 중남미였다. “다 가졌지만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라는 틀은 아직은 유효하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국이 1996년 12월 소위 ‘부자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하면서 어깨를 으쓱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클럽에 한국보다 한발 앞서 1994년 멕시코가 가입했었고, 그 뒤를 이어 칠레와 콜롬비아가 각각 2010년과 2018년에 가입했고 현재 코스타리카가 가입절차를 밟고 있다면 약간 놀랄 수도 있겠다. 못살고 낙후된 지역으로만 생각한 중남미에 ‘부자클럽’ 회원으로 4개 국가나 있다니... 또한 한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국가가 2004년 칠레를 최초로, 페루(2011), 콜롬비아(2016), 중미6개국(2018)이 있으며, 현재 멕시코와도 FTA체결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중남미와 한국이 그리 멀지만도 않다. 특히 중남미 청소년들의 감성을 사로잡고 있는 K-pop 열풍도 한국과 중남미국가들과 가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효자상품이기도 하다.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정적 공간은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남미는 어떤 곳인가? ‘자원의 보고’일 뿐인가? 중남미는 과거 스페인 식민지시절부터 구리, 금, 은 등의 자원의 보고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광물인 백색황금, 리튬이 넘쳐나는 곳이다. ‘자원의 저주’라고 일컬어질 만큼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는 물론, 세계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의 셰일가스, 그리고 커피, 설탕, 쌀, 밀, 옥수수, 레몬, 청정 쇠고기와 해산물 그리고 코카인까지, 게다가 동식물 다양성까지 없는 게 없다. 정말 축복받은 땅이 아닌가? 아마존개발을 놓고 세계허파의 파괴라고 국제적 비난여론이 높지만, 당사국에게는 국토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악일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저자는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이 책자에서 리포트형식으로 보고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절심함도 토로하고 있다. 산림의 부문별한 별채(파괴)도 막아야 하지만 환경보호로 인간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저자의 주요외교무대였던 아르헨티나의 세일가스가 현재는 ‘죽은 소’ (Vaca muerta)이지만 세일가스의 채산성이 높아지는 날,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소’ (Vaca viva)로 변신도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며, 아르헨티나에 대한 애정표현도 잊지 않고 있다.

제5부와 6부에서는 백과전서식 소개 책자인 만큼 중남미의 정치사회를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함께 저자의 학술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진지한 중남미 정치사회 분석에 돌입한다. 제5부 ‘상처로 얼룩진 복잡한 인간사회’에서는 간략하게 스페인의 식민시대의 부왕령(Virreinato) 중남미로부터 아르헨티나의 페론이즘까지 ‘한 번에 보는 중남미 정치사회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핵심을 집어가며 현(現) 중남미 정치사회의 문제점을 집어내고 있다.

중남미의 2중 사회구조와 불평등구조는 식민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지배계층 간의 이동에 - 스페인

백인에서 현지백인 크리오요(Criollo)- 기인한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특히 이 파트에서는 콜롬비아 50년 내전과 종식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페론이즘(peronism)의 몰락과 부활에 관해 크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페론이즘은 국내에서의 대중인기영합주의라는 부정적 평가를 잠시 미루고, 페론이즘은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국가사회주의와 ‘노동자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였다고 기억하고, 과거 영광스러운 ‘부자국가’ 아르헨티나 향수와 맞물려 불사조처럼 부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평등에 대한 ‘환상’이야말로 필자는 최근 2019년 아르헨티나 대선예비선거에서 중도우파의 현직 대통령 마크리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린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를 내세운 후보의 압승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저자는 중남미사회의 ‘아킬레스건’인 코카와 코카인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뒤엉킨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사회를 분석하며 다층적인 정치사회문제임을 보여준다. 안데스 지역의 코카재배는 수천 년 전통문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그들 원주민과 경작자들의

생존문제가 걸려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최근 이들 국가들은 코가재배 대신 환금성 작물인 카카오나무 재배를 권유하고 있으며, 작기만 생존과 생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전한다.

제7부 ‘중남미 정치역학 변화’에서는 과거 제국주의 미국의 ‘퇴조’와 이들 대신해 무서운 기세로 다가서고 있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새로운 제국주의의 도래는 아니냐 진단하고 있다. 중국은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중남미시장의 큰손으로 - 중국 2005년부터 860억달러 차관제공- 중남미 외교무대의 강자를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의 저돌적인 외교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중국 뽕’ (cuento chino)이라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계획이라고도 평가해 중국에 대한 낮은 신뢰감의 표현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거시적 관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대(對) 중남미 장기투자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향후 우리나라의 대(對) 중남미정책에 좋은 예를 제시하지 않았나 싶다.

중남미의 정치경제사회는 불연속적 파편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문화예술은 그 속성이 전통과 파괴인 것만큼 ‘단절의 전통’일 수도 있다. 중남미의 대(大)지성, 옥타비오 빠스(Octavio Paz)와 까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는 이러한 파편화와 말로 중남미문화예술을 살찌우는 폴리포니(Poliphony)적 ‘샐러드 볼(Salad Bowl), 이종혼합의 문화동력이 되었다고 갈파하고 있다. 실제로 중남미 문화예술은 세계문화예술의 변방의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중심에 섰다. 쿠바혁명으로 상징되는 자유와 자주독립에 대한 열정은, 기존의 유럽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자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려했던 중남미문화예술에 강한 동력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공적인’ 쿠바혁명과 더불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의 전(全)분야에서 전통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단절의 전통’을 세우며 현대문화예술사를 선도했다.

60년대의 ‘붐(Boom)소설’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까를로스 푸엔테스

(Carlos Fuentes),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 훌리오 꼬르타사르(Julio Cortázar)가 그리하며 소설의 혁명을 주도했다. 정치와 예술의 결합 그리고 예술의 대중화와 민주화를 실현했던 멕시코 벽화운동의 실천주의적 화가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현한 프라다 칼로(Frida Kahlo),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오스왈도 과야사민(Oswaldo Guayasamin)은 중남미 미술을 세계정상에 우뚝 서게 만들었다. 아직도 가슴절절하게 울려오는 꿈과 희망, 사랑의 전도사였던 새 노래운동(Nueva Canción)은 모두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하는 혁명가적 열정에서 시작했었다. 현재의 중남미가 지금의 웅크림에서 언제 도약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는 없지만 중남미는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기회의 땅이며 희망의 메시지임은 분명하다.

III. 아직도 희망은 이 땅에 분명히 있다!

중남미가 ‘아메리카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말은 필자가 어렸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중남미는 아직도 광대하며 무한 잠재력의 땅이다.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남미의 땅은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는 새색시 같은 모습일지도 모른다. 한국청년들이여 중남미로 날아라! 넓은 대지를 한번 맘껏 달려보지 않겠는가? 중남미는 저자의 말대로 신의 땅이며 동시에 사람의 땅임에 틀림없다



이 책의 저자도 필자도 다 같이 중남미 땅에서 10여년을 보냈다. 결론은 중남미의 공기는 여전히 가볍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다. 치안부재의 땅으로 보여지만, 평범한 일개 ‘범부’가 살기에는 너무 자유롭다.

60년대 희망의 땅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났던 이민1세대, 이제는 그들의 후손들인 2,3세대의 중남미대륙이다. 이제는 커나가는 국력과 함께

중남미사회의 주류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민 2,3세대들, 이들의 ‘영 파워’에 필자는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다. 아마도 저자의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신의 선물, 사람의 땅 중남미’이지 않겠는가?



간추린 소식

1.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자유학기제 운영 (2019.03.11.~07.08)



(구서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자유학기제 수업)

중남미지역원은 인문한국플러스 (HK⁺)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초중등 인문 소양 교육지원을 목표로 부산 구서여자중학교에서 3월부터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총 32주간 (1분기: 2019.03.11~05.13 /
2분기: 2019.05.20.~07.08)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라틴아메리카 알아가기를 주제로 하여 멕시코 문화, 브라질 문화, 가우초 문화, 중남미의 춤, 중남미의 음악, 중남미의 축제, 중남미의 음식 등 다양한 강의 내용을 준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관련 영상과 자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퀴즈 풀기, 음식 만들기, 걱정인형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학생들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예술과 문화 소개하였다.

2. 제 46차 월례세미나 개최 (2019.3.28.)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3월 28일 제 46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HK+ 지원사업 1차년도 아젠다인 “신전환(New Transition)의 라틴아메리카, L.A.T.I.N.+를 통한 통합적 접근과 이해” 관련하여 중남미의 해당 연구국가의 최근 이슈에 관련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제 1 발표에서 중남미 지역원 임상래 원장이 “AMLO의 멕시코 개혁, 순항할 것인가, 좌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2발표에서 조영현

교수가 “쿠바 혁명 정권과 시민사회: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제 3발표에서 구경모 교수가 “기층문화와 민족주의: 과라니 정체성의 형성”, 제 4발표에서 이태혁 교수가 “에너지 안보와 불평등: 아이티 반정부 시위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 5발표에서 고메즈 교수가 “La memoria del 68 en México como discurso político, social”라는 연구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3.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라틴문화모임 ‘부에나 비스타’ 정기모임 실시 2019.03.05. (3회), 2019.04.29. (4회), 2019.08.27.(5회)

중남미지역원은 인문한국플러스 (HK+)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센터는 부산·경남권의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라틴문화모임인 ‘부에나 비스타’를 운영하고 있다. ‘부에나 비스타’는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명저 읽기와 명화 감상시간을 가졌다. 본 프로그램은 2018년 11월 26일 시작하여 2019년 8월 27일까지 총 5회의 모임을 가졌다.



(중남미지역원 도서관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라틴문화모임 ‘부에나 비스타’ 정기모임)

4. 제 38차 콜로키엄 및 MOU 협정식 (2019.05.09.)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5월 9일 제 38차 콜로키엄 및 MOU협정식에서 ‘멕시코 전환기의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조우현 변호사를 전문가로 초빙하여 중남미지역원 아젠다 연구를 위한 콜로키엄을 진행하였다.



(제 38차 콜로키엄 진행 사진)



(중남미지역원은 CHO&ASOCIADOS 법무·회계법인과 MOU를 체결함)

제 38차 콜로키엄은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신정부 (MORENA/국가재건 운동당)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및 멕시코 법 특이점에 관하여 고위공무원 특혜 면책특권 철폐, 부정부패 척결 및 평화와 공공치안 안정화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CHO&ASOCIADOS 법무·회계법인과 학술 및 법률 활동에 관한 자문,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 및 법률 정보 교환 등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타 제반 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5.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라틴헤리티지

셀레브레이션 위크 진행 (2019.5.18.~5.24)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19 라틴헤리티지 셀레브레이션 위크 (2019 Latin Heritage Celebration Week')를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5월 18일에는 “멕시코를 내 가슴에” 라는 내용으로 중남미학부와 멕시코 이주민 협회의 협력을 받아 중남미출신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다문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5월 20일에는 소설가 겸 정치평론가 표병관 작가의 초청강연인 “작가의 남미구경”과 “흥을 참지 Mayo”를 타이틀로 한 중남미학부 동아리 공연이 있었다. 5월 21일에는 본 대학의 글로벌센터 2층에서 중남미지역원 발간 도서전시 및 중남미 사진 전시회가 있었으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웹툰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 쇼비의 “웹툰으로 만나는 중남미” 특별강연과 이정관 전(前) 브라질 대사의 “기회와 희망의 땅 브라질” 명사특강이 진행되었다.



(2019년 5월 18일에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된 중남미출신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다문화 워크숍 “멕시코를 내 가슴에”)



(2019년 5월 20일에 진행된 소설가 겸 정치평론가 표병관 작가의 초청강연 “작가의 남미구경”)



(2019년 5월 20일에 진행된 중남미학부 동아리 공연 “홍을 참지 Mayo”)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2019년 5월 21일 본교 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중남미지역원
발간 도서전시 및 중남미 사진 전시회)



(2019년 5월 23일에 진행된 전 브라질 대사 이정관의 명사특강 “기회와 희망의 땅 브라질”)

6.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 ‘신전환의 라틴아메리카: 분열과
통합의 지정학’ 개최 (2019.06.01.~06.02)



(2019년 6월 1일부터 2일에 진행된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
‘신전환의 라틴아메리카: 분열과 통합의 지정학’)

중남미지역원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와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 6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본교
남산동 캠퍼스에서 ‘신전환의 라틴아메리카: 분열과
통합의 지정학’이란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4부로 구성되었다.

제 1부 “세션 1 : 라틴아메리카의 천연자원과 중국”, “세션 2 : 중남미 사회변화와 종교” 제 2부 “세션 3 : 브라질 정치경제 변화와 전망”, “세션 4 : 라틴아메리카 개혁과 정치적 기회” 제 3부에서 “세션 5 : 카를로스 푸엔테스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서성철”이라는 주제로 중남미 지역 연구에 헌신한 고(故) 서성철 교수를 기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4부 세션 6에서는 이번 학술대회 제목인 “신전환의 라틴아메리카: 분열과 통합의 지정학”을 본 순서의 주제로 “종합토론”을 열었다.



(세션 5에서는 카를로스 푸엔테스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서성철”이라는 주제로 중남미 지역 연구에 헌신한 고(故) 서성철 교수를 기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7. 제 52회 초청강연회 및 MOU 체결식 (2019.8.8.)



(2019년 8월 8일에 진행된 중남미지역원 제 52회 초청강연회 및 MOU 체결)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8월 8일 정경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중남미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고,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사업의 발전적 전망과 연구기관간 협력 가능성 탐색, 새로운 해외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국내 및 해외 기관 네트워크 현황 등의 내용으로 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정보 교류, 연구협력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